예술인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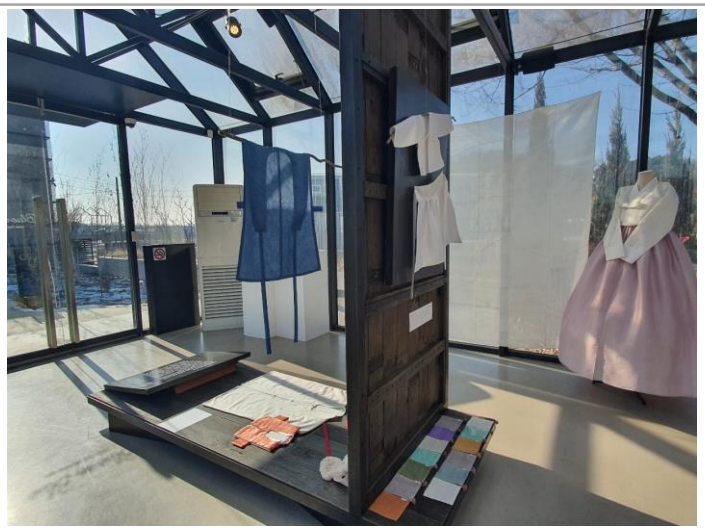
작성일 : 2021. 1. 17.

설치미술가, 전시기획자

변 경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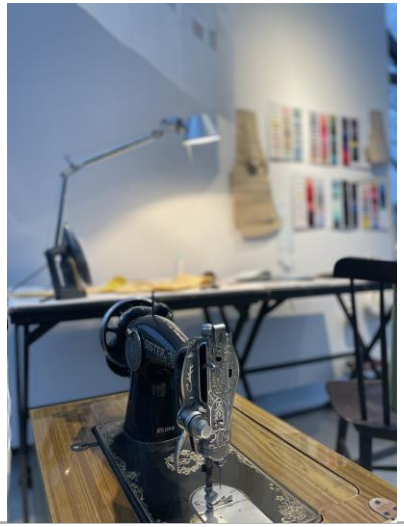
예술인명	변 경 주	
소 개	독립큐레이터, 설치미술가, 예술인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는 영역을 탐구합니다.	
주요 교육 이력	2013.02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미술사학과 석사
	2010.02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장식미술학과 학사
전시기획	2022.01	<바늘과 바람(希)의 시>, DoCK갤러리, 경기
	2021.12	<이상한 나라의 청춘미술관>, 동탄목동이음터, 경기
	2020.10	<불온한 것들의 생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단 체 전	2021.12	<이상한 나라의 청춘미술관>, 동탄목동이음터, 경기

주요전시(기획) : <바늘과 바람(希)의 시>



전시일정	2022. 01. 07 ~ 2021. 02. 03
전시장소	**DoCK 갤러리(경기도 안성시 청원로 1850-3)**
전시소개	우리나라 전통 의복을 연구하는 한송이 작가의 개인전.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작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시는 작가의 작업의 방향이 드러날 수 있는 작업실을 연상할 수 있는 의도로 기획함.

주요전시 : < 바늘과 바람(希)의 시>



주요전시 : < 바늘과 바람(希)의 시 >

참여 작가: 한송이

전시 서문: 변경주

한땀 한땀 이어지는 바늘의 궤적을 따라 농축된 시간을 풀어내는 한송이 작가는 전통이라는 시작점으로부터 현대적 감각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우리의 전통 의복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일은 옛 사람들의 삶을 현재로 연결시키는 일이다. 천 위에 색이 얹히고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과정에서 바늘은 조각낸 천을 이어가며 오래된 기억을 모으고 형상화한다. 바느질을 통해 잊혀진 형태와 쓰임을 되살린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이어져오는 질긴 유대의 실타래를 따라가보는 여정이 될 것이다.

주요전시(기획) : <이상한 나라의 청춘미술관>

전시일정	2021. 12. 01 ~ 2021. 12. 30
전시장소	**동탄목동이음터 로비(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0길)**
전시소개	동탄목동이음터 동아리<청춘미술관>의 전시로 본인이 기획하고 동시에 작가로 참여함. 미술사적 배경에 기반하여 현재를 반영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공공장소을 이용한 공공미술적 성격을 부여하였음.

주요전시 : < 이상한 나라의 청춘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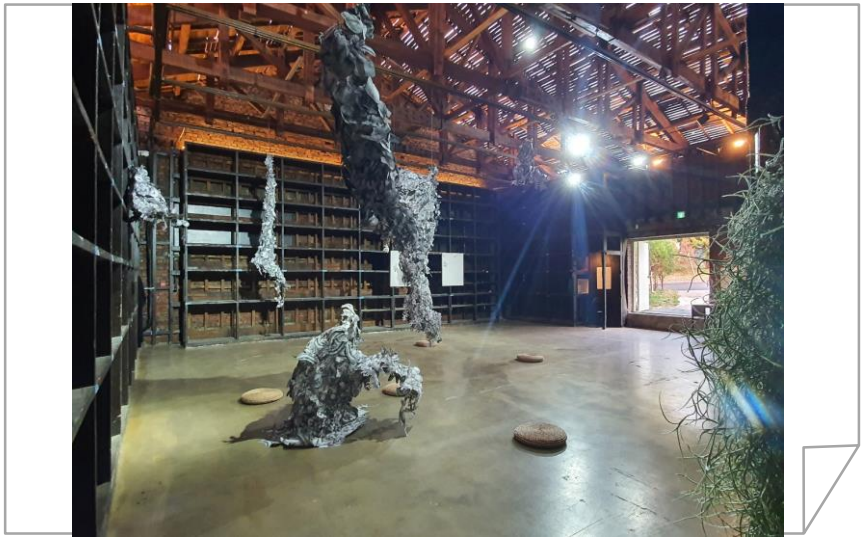
주요전시 : < 이상한 나라의 청춘미술관>

참여 작가: 박광덕, 성미화, 변경주

전시 서문: 변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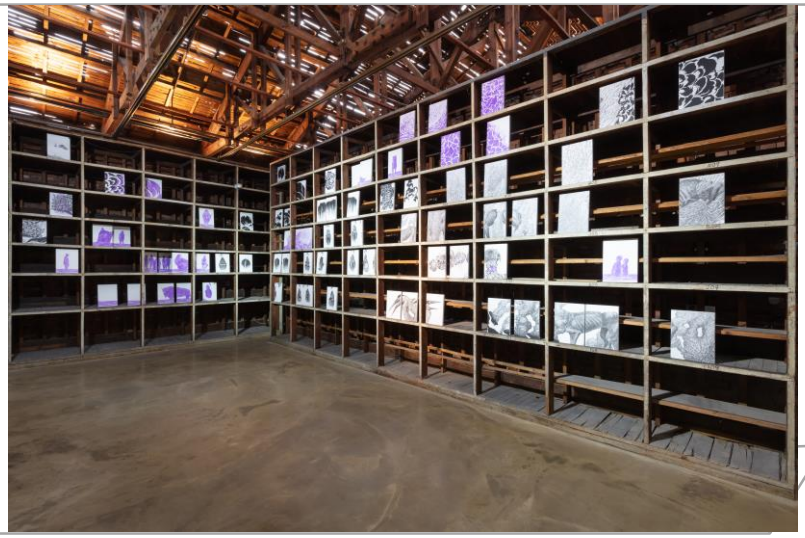
전시 <청춘미술관>은 미술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고 일상에 숨겨진 낯선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관습적 사고를 살짝 걷어내면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상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익숙한 이름과 부여된 쓰임을 지워내고 처음 만나는 시선으로 주위를 바라보면 세상은 인간이 만든 틀과 형태로부터 저만치 벗어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낡은 생각을 깨고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작가들의 작품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나와 이웃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신기학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주요전시(기획) : <불온한 몸-이식된 것들의 생태>



전시일정	2020. 10. 08 ~ 2020. 10. 18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전시소개	코로나 시대 근본적인 생태적 문제를 되짚어 보기 위해 기획한 전시. 인간과 환경을 몸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작업하는 작가들과 함께 생태적 공간을 기획함.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i7H9TXw-5o

주요전시 : < 불온한 몸-이식된 것들의 생태>



주요전시 : < 불온한 몸-이식된 것들의 생태 >

참여작가: 강주리, 안준영, 이샛별

전시 서문: 변경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던 것들이 갑자기 존재를 드러낼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것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의 장소를 확장하며 예측할 수 없는 궤적으로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불안해진다. 우리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 속에서 원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이식된 것들이다. 종들의 이식은 전 지구적 흐름으로 모두의 신체는 다양한 생명체들의 교차점이 되는 생태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된 지금 타인을 향한 시선에는 오염된 몸이라는 불온함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견고한 물성일 뿐 몸은 이식된 것들이 만들어 가는 생태이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표현한 몸은 신체의 확장된 개념으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들의 신체와 그들이 만들어 가는 생태공간을 포괄한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 중에 미미하고 보잘것 없는 것들의 세계에 눈을 돌리게 하는 작가들의 작업태도는 우리의 시선을 생물학의 범위를 넘어 자연 환경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연결시킨다.

이번 전시를 통해 타인에 대한 불온한 시선을 거두고 나의 일부를 다른 생명체 속에서 해석 가능한 것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